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서론.....	5
8283 타락의 과정. 존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과정.....	5
3392 하나님의 뜻과 대적자의 뜻. 무질서.....	6
7375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7
1501 십계명. 계명을 주게 된 이유.....	8
십계명 - 첫 번째, 두번째 계명 (카톨릭: 첫번째 계명).....	10
4978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10
8298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1
7045a 대적자의 속임수. 나타나는 현상.....	13
7045b 대적자의 속임수. 나타나는 현상들 (마리아 숭배).....	14
6070 너희는 너희 곁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17
세번째 계명 (카톨릭: 두번째 계명).....	18
4978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18
3130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	19
6123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 진리와 거짓. 대적자의 가면.....	20
5074 예수 이름을 헛되이 말해서는 안된다.....	21
네번째 계명 (카톨릭: 세번째 계명).....	23
4979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23
239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계명.....	26
4461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인 기도. 간격을 줄이는 일.....	27
4343 내면의 생활. 고독한 가운데로 뒤로 물러섬.....	28
5833 주의 날. 계명,.....	29
다섯번째 계명 (카톨릭: 네번째 계명).....	31
4979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31
7149 부모와 자녀의 책임.....	34
4868 이웃 사랑.....	35
6855 공기와 물과 음식물의 오염.....	36
여섯번째 계명 (카톨릭: 다섯번째 계명).....	38
4979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38
3300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41
1499 싸움. 싸움의 동기.....	42

6005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43
6156 살인하지 말라.....	44
일곱번째 계명 (카톨릭: 여섯번째 계명).....	46
4979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46
2461 부도덕함. 기록되지 않은 법 (불문법).....	49
0850 감각의 중독. 성교. 목적.....	50
4834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부.....	50
여덟번째 계명 (카톨릭: 일곱번째 계명).....	52
4982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52
1156 경계선의 돌. 영적인 소유. 영적인 부유함.....	53
5504 영적 침체의 이유. 물질을 향한 집착.....	54
아홉 번째 계명 (카톨릭: 여덟번째 계명).....	56
4982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56
0566 거짓과 진리 1.....	57
5535 사탄의 역사.....	58
2247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편을 들 의무가 있다.....	59
열번째 계명 (카톨릭: 아홉번째 계명과 열번째 계명).....	61
4983 열 번째 계명.....	61
0688 세상의 소유와 자기 사랑... 영적인 소유와 이웃사랑.....	62
6127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정욕과 욕망을 극복하는 일.....	63
1805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계명의 성취. 사랑의 계명.....	64
7234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	65
8473 계명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66
8067 사랑의 계명의 의미. 사랑은 식었다.....	67

타락의 과정. 존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과정.

B.D. No. 8283

1962년 9월 26일

내 사랑의 흐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빛을 잃는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흐름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흐름에 너희 자신을 열 때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빛과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써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의 모든 온전함을 잃게 되었고 나로부터 온전하게 창조된 너희 성품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전적인 반대되는 성품을 입게 되었다. 내 신적인 존재의 모든 특징인 온전함을 잃은 것이다. 너희가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가까이에서 거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최초로 나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성품을 바꾼 내 대적자의 성품을 너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내 대적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피조물들을 소유하려고 했고 비록 내 능력으로 존재하게 됐을 지라도 그의 의지를 사용해 수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 이 피조물들은 내 일부분이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를 나에게 또는 내 대적자에게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었을 때 그들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창조한 자가 이들을 나로부터 떠나가게 했다. 그는 이들 앞에서 모든 화려함으로 자신 스스로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내며 볼 수 있는 자기를 따르라 고 명했다. 그들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들은 나를 자신들을 창조한 존재로 알았다. 그들은 다른 자에 게로 돌아섰다. 그들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했다. 이는 능력과 빛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내 대적자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 되었다. 그들은 내 대적자를 자유의지로 따랐다. 그들은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로부터 무제한으로 사랑을 받던 옛날처럼 행복한 상태가 아닌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되었고 빛과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한때 나로부터 능력으로 비추임을 받은 자신의 빛과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의식을 잃게 되었다. 계속하여 아무런 행함이 없이 남을 수 없다. 왜냐면 영원한 법칙에 따라 능력은 활동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한때 존재로서 반출된 능력을 변형시켜서 내 의지에 의해 섬기는 역할을 받은 모든 종류의 창조물을 창조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는 이런 섬기는 역할을 부여했다. 반출된 능력은 이제 자신들에게 정해 준 것을 성취했다. (1962년 9월 26일)

이들은 항상 단지 내 의지를 따라서 행했다. 나는 한때 자유한 존재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그들에게 계속하여 주어지는 사랑의 힘을 사용하게 했다. 왜냐면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는 동안에는 존재들의 사랑이 나와 같은 의지 아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은 실패했고 전적으로 반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극심한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 다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내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제한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의 힘을 주어진 목적의 따라 사용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창조하며 자유의지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의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내 의지에 합당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들의 의지를 정하고 올바른 사랑은 절대로 나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원하고 나와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한때 발출되어 나온 능력은 영원히 행함이 없이 남을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역사에 능력을 사용하면, 나 자신이 이 역사의 효과를 막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에 온전한 존재로 창조된 이들을 다시 작은 그리고 가장 작은 능력의 입자로 만들어서 단지 내 의지대로 일하게 하고 나는 이 모든 입자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만들어서 다시 전에 창조된 한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 존재는 다시 자기자신을 의식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받는다. 나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속하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이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특징이고 최고의 행복을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가장 깊은 어두움을 추구할 수도 있다. (1962년 9월 26일)

나는 이 깊은 곳으로 타락한 존재도 다시 최고로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나를 떠난 그들이 다시 언젠가 내 자녀로 돌아올 것을 알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내 의지는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이 바로 내 의지가 물러서는 기간이다.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되길 추구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만약에 그가 어떠한 강요받지 않고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준수할 때 그가 사랑의 삶을 살며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말해 내가 그를 창조할 당시 자신의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들면, 이에 도달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증명했다.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같아졌고 그는 이제 그를 내 자녀로 만드는 온전함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원함 가운데 내 자녀로 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대적자의 뜻. 무질서.

B.D. No. 3392

1945년 1월 4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앞세운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으로 옮겨진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향하고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

단지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선한 것을 원하고, 선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의지아래 복종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의 의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한다. 즉 자신의 의지를 사람에게 관철시켜 사람이 선한 일을 멀리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을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그는 더 적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잘 나타난다. 왜냐면 사람들의 행동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의 의지가 존중되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빛도 없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빛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해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고, 혼이 해를 입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는 자가 어기는 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적하며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든 지혜를 잃는다. 이 결과는 무질서한 상태이며, 부패되고, 결국에는 파괴된다.

하나님의 의지는 건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는 파괴한다.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사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가 주어졌다. 대적자는 파괴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 왜냐면 그에게는 파괴할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속적인 노력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은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대적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실행한다. 이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존중되지 않는다. 그런 일의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행하도록 놔둘 것이다. 이로써 무질서가 증가되어,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파괴하는 역사를 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한다. 이를 어기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이 이 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영의 나라에서는 더욱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B.D. No. 7375

1959년 6월 23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나를 너희에게 계시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나에게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계시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침묵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말할 수 있기를 너희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기를 나를 떠나 타락한 이래 자녀들을 원하는 나를 너희에게 아버지로 계시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자들에 대한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이제 내 음성을 들으면, 이를 내 음성으로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걸어 오기를 갈망하면, 그는 이미 귀환의 길에 들어선 것이고 아버지의 심장에 가까이에 있다. 그가 원초부터 느끼던 행복에 다시 도달하게 확실하게 다시 연합되게 하기 위해 그는 단지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되길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땅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단지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내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언제든지 내가 계시하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이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를 온전하게 되게 돕는 복되게 돕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쉽게 해주고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면, 자신 안에 음성이 울리게 하기 위해 단지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너희가 들을 수 있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함을 믿는가.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가 종을 통해 내 말을 그들에게 줄 때 이 말을 그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는가!

그들 모두는 내 자녀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는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내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 이 때문에 그들의 심장에서 내 나지막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단지 나를 믿고 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이제 조용히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내가 그에게 말 하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나로부터 들을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그는 내 말을 듣고 넘치게 행복할 것이다.

아멘

십계명. 계명을 주게 된 이유.

B.D. No. 1501

1940년 7월 3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십계명 모두를 지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성취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근본 이유를 아는 것이 말할 수 없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여,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의 상태는 단지 사랑이 아주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을 향한 집착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 모든 세상의 기쁨에 대한 사랑이 말할 수 없게 커서, 그들은 이웃사람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우유부단하게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 드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굴복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은 그들에게 끔찍한 불행을 보내, 그들이 내적으로 돌이키게 재촉했다. 그들은 그들의 저조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들의 육체적인, 영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모든 사항들을 깨달을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었다. 시나이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율법을 주어, 가장 독한 죄인도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깨닫고, 그들에게 깊은 내적인 돌이킴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야만 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확실한 음성으로 자신의 율법을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아주 선명하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최악된 삶이 드러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눈이 멀어, 그들에게 자신들의 불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계명을 줘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사람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취했다. 그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통해 영원한 신성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는 모든 것을 했다.

영적인 저조한 상태는 드러나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힘과 권세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알려줬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같은 것을 가르쳤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이 가장 큰 계명에 첨가했다. 이로써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되어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

아멘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B.D. No. 4978

1950년 10월 3일

기준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고, 내 뜻을 성취시켜야 한다. 너희는 항상 내 사랑의 계명을 염두해 둬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삶은 항상 나의 영원한 질서이고, 죄와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가 전한 십계명이 나의 사랑의 계명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지 확인을 해주고, 십계명은 내가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 나의 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

너는 단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게만 너희의 모든 사랑을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이 한 존재가 네가 마음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도달하려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너의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어떤 일도 너에게 없어야 한다. 왜냐면 사람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 신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네 사랑을 줄어들게 하고 그러므로 내 옆에 함께 있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사랑은 전적으로 모두 너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해야 한다. 왜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너의 삶과 너의 의지와 너의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즉 나 자신과 내 사랑을 얻었고, 내 가까이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계명은 첫 번째 개명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개명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창조한 것을 향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고 그러므로 두 계명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

너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믿을 수 있기 위해,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비록 너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모든 생각과 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나의 임재를 감지하고 느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내면의 생활에 항상 함께 하고, 너희 질문을 알고, 너희가 나에게 기회를 주면, 즉 생각으로 너희의 질문을 나에게 올리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면, 너희에게 항상 답변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응답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다시 말해 응답이 오는 내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항상 응답받을 것이다.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받으라.

세 번째 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최고로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이고 이런 존재로 머문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나와 연결될 수 있고, 너희가 나와 연합되기 원하면서 나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나를 부르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는 일을 통해 너희의 나를 향

한 의지를 나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절대로 제외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마지막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기 원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순종하면서 내 뜻을 따르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심장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 이름을 입에 담은 일을 원하지 않고, 너희가 거짓되게 사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실제로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는 나의 자녀로 보이기 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웃을 속이기 위해 항상 내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에게는 숨겨져 있는 너희의 생각과 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통해 나와 연결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심장과 입으로 말한 것이 다르고, 심장이 느낀 것과는 다르게 입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공개적으로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진실로 너희를 위해 더 낫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름을 사용하지만, 심장으로 나를 대적하는 너희에게 어떤 깨달음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너희 이웃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너희 죄를 두 배로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고, 너희가 나를 너희의 잘못된 생활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아직 나를 믿음으로 그들 자신에게 내가 최고로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너희를 심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비록 믿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너희의 잘못을 인내로 감당한다. 그러므로 모든 진지함이 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유혹이다. 내가 이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실제 성품을 숨기기 위해 너희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사용하는 일은 나를 무시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나를 공개적으로 나를 떠났을 것이고, 너희의 삶을 숨기려고 하지 안 했을 것이다. 헛되이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짓말이고 언젠가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심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일이다.

아멘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B.D. No. 8298

1962년 10월 14일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인 나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희가 세상적인 물질에 연연해 함으로써 나와 연결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모든 감각으로 갈망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너희 위에 있는 너희를 창조한 권세를 인정하면서 나를 수궁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너희 심장에서

나오는 갈망에 맞는 다른 신을 내 옆에 둔다. 이 것이 나를 너희 심장에서 몰아내는 세상적인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와 명성 또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다른 신들이다. 이런 다른 신들은 쇠하는 것들이다. 너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면, 너희는 이것들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 인생에서 너희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 원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너희가 복되기 원하면, 모든 능력으로 추구해야만 할 나 자신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을 때 너희는 빈손으로 저세상으로 가야 한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창조되었다. 나는 너희가 나를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 자신과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할 자세가 있다는 증명을 나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너희 스스로 속한 것으로 느끼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희와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되어 있기를 원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너희 심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소유했으면, 너희가 단지 삶의 가치로 여기는 너희 이 땅의 삶을 관찰하라. 너희가 나를 너희의 창조주를 믿으면, 너희는 내 옆에 세워 둔 많은 신들을 만든다. 너희가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 한 이런 믿음은 가치가 없다. 세상과 세상에 향한 갈망은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는다. 너희의 사랑은 내 대적자의 일부분 들인 여러 가지에 속해 있다. 나 자신이 너희 생각의 첫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너희가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기 위해 이에 대한 갈망을 너희는 극복해야만 한다.

너희가 영의 나라의 존재에게 기도함으로 영원한 복에 도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내 옆에 신을 만든다. 그리고 너희의 나에 대한 관점은 아직 올바른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중단시킨 나와 연합을 다시 이루는데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너희가 스스로 이뤄야만 하고 어떤 중보 기도자도 중보 기도를 통해 이뤄줄 수 없다. 그들은 항상 단지 생각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복되게 되기 위해 거절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나 자신을 향한 길을 알려 줄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생각과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 영원한 질서의 법이 빛의 존재 안에 심어져 있지 않았으면, 빛의 존재들의 사랑은 아주 커서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함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모든 혼들이 자유의지로 나를 향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남기 원한다.

전적으로 완전하게 나는 너희 심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 심장을 내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심장이 아직 여러가지 종류의 소원과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으면, 너의 심장 안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홀로 다스리는 것을 막는 다른 신들이 있다. 만약에 내가 한 혼을 전적으로 온전히 소유하면, 이는 내가 그 혼에게 이제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는 나와 바꾸기 위해 다른 재물을 희생한 것을 진실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사람의 심장 안에서 홀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사이의 깊은 연합은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지하게 너희 안에 나 자신보다 더 의미를 두는 것들에 대

한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이든 소원들로 채워져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 첫 번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로 남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안에 모든 세상적인 갈망을 죽이려고 하라. 모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로 너희는 실제로 단지 내 대적자이며 이 세상이 그에게 속한 흑암의 권세자를 섬기게 된다. 재물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너희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는 나 홀로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는 내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나만을 경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만을 그의 심장의 모셔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멘

대적자의 속임수. 나타나는 현상.

B.D. No. 7045a

1958년 2월 17일

L 구든지 지하세계의 권세자의 영역인 깊은 지옥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너희는 이 세계의 존재들이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모두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고유의 성품도 대적자와 같고 그들은 항상 대적자와 일치하고 대적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자원해 일하는 종들이다. 그들이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영역은 아주 크다. 어디든지 자신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생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

왜냐면 한때 창조 된 원래 영들이었던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들과 그리고 아직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허용이 되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창조물들이 즉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와 그의 종들에게 거할 장소를 제공하는 창조물에 대해 권세가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은 최고로 열심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헌신하게 사람의 의지에 역사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키려는 모든 영향력에 대항해 싸우지 않으면, 그는 큰 위험 속에 있다. 그가 큰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내 대적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모든 계획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악성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면,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깨어났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단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속일 줄 안다. 대적자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이고 원수로 남는다. 그러므로 대적자는 인간으로 존재를 위해 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그는 먼저 재물과 세상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런 유혹에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다. 이로서 대적자는 물질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이미 빠진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어렵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의 혼을 다시 전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다시 돌이키려는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다시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 아래로 인도하는 악한 일을 하게 유혹한다. 대적자의 종들을 돕는 자들은 대적자를 돕고 대적자의 영향력이 아직 깊이 미칠 수 없던 곳에서 자신들의 독이 있는 입김으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지옥과 그의 권세자로부터 보냄 받은 자가 그들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면, 그들의 정체기가 드러나고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서 일한다. 그들은 선한 가면 뒤에 숨는다. 그들은 순수함과 진실성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변장술을 이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들은 원수의 손에서 자신의 혼을 빼기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깨어 있는 일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부족하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피상적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모든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가면 뒤에 있는 원수를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 안에 선을 향한 의지와 나를 향한 소원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진실로 의지가 단지 나에게만 향해 있는 사람들이 대적자에게 속아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권모와 술수로 일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고 현혹시키는 것에 자신을 당황하게 해서 안 된다.

항상 그는 나에게 나와 내가 설명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그는 항상 나에게 의탁하고 내 보호를 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 대적자는 그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내 대적자가 강요할 수 없는 너희의 의지에 의해 너희는 위험을 피한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진지하게 나를 향해 머물면, 그의 의지는 나에게 의해 항상 강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을 알려 주는 내 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말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자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이고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아멘

대적자의 속임수. 나타나는 현상들 (마리아 숭배).

B.D. No. 7045b

1958년 2월 20일

내 대적자의 특별한 술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 자신을 몰아내는 일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로써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다른 신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하면, 이는 신들의 호의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내 증보를 구하기 위해 내 옆에 세우는 이방신들이다. 너희는 나에게 직접 오는 길을 택해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일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한때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알면, 너희는 이의 반대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가 한때 지은 죄는 의식적으로 나로부터

터 떠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식적인 연결을 이루어야만 하고 이를 통해 너희가 한때 지은 죄를 깨닫고 나에게 고백해야만 한다.

어떤 존재도 비록 그가 빛이 충만할지라도 너희를 위해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대신해서 구하는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왜냐면 의지가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 자신의 역사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 왜냐면 이로서만 너희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중단했던 연결을 다시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의 교활한 무기가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되는 일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게 하거나 또는 너희가 돌아가는 길을 통해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전적으로 막는 일이다.

이 무기로 그는 아직 그래도 모든 믿음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선함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그가 속일 수 있기에 좋은 사람에게 접근한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을 얻으려고 한다. 그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막기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저세상의 중보 기도자"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했고 자신을 위해 수많은 추종자 들을 얻었다. 사람들은 실제로 중보 기도하면서 저세상의 연약한 혼들을 도울 수 있다. 왜냐면 이는 연약한 혼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고 내가 사람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가 연약한 혼에게 능력을 보내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빛의 존재의 중보 기도 전적으로 다르다. 모든 빛의 존재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빛의 존재는 진실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지혜도 충만하다. 그들 모두는 원죄를 안다. 그들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안다. 그들은 어떻게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원래 상태로 다시 얻을 수 있는지 안다. 그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 맘대로 사람들을 그들의 최악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받지 못한 모든 존재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아주 커서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에 침입하지 않고 사람이 축복에 도달하기 위한 도움을 받으려면, 그의 생각이 먼저 나와 연결을 시켜야만 함을 깨닫고 나에게 향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존재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여 나에게 돌아오는데 쓰라고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는 일은 절대로 빛의 존재들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나 빛의 존재들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잘못된 가르침을 지원하는 일은 더욱 빛의 존재들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수법을 사용한다. 그는 어두움을 깊게 하기 위해 거짓 빛을 비친다. 그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는 내 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어두운 상태를 이용한다.

내 이 땅의 육체를 잉태한 여자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존재가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녀의 나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나로부터 떠난 모든 존재들을 다시 나에게 인도하려고 한다. 왜냐면 그녀도 이런 존

재들을 사랑하고 존재들이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지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가장 날카로운 적인 루시퍼가 바로 이런 아주 거룩한 존재를 자신의 계획들을 위해 활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활용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드러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잘못 된 가르침이 의심받고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그는 사탄적인 역사로써 항상 그녀의 형상이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다시 역사하는 것이다.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권세를 강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가장 깊은 어두움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실로 밝음을 주어 나에게 직접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는 자신 안에 스스로 빛을 밝히기 위한 사랑을 스스로 아주 적게 행함으로 대적자의 그물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958년 2월 20일)

사람들이 단지 더 많이 사랑의 삶을 살면, 이런 영적인 혼란과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를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주 내적인 일에는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동시에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세상적인 행사가 혼의 생활을 지배하게 한다. 그들은 사람의 감각을 충족시키고 혼은 안개에 쌓이게 한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에게 쉬운 일이다. 사람들은 그의 역사에 넘어간다. 만약에 사랑이 사람들의 심장에 충만했으면, 사랑은 빛이고 사랑은 인간의 영을 밝혀주기 때문에 대적자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왜 대중들이 내 대적자의 현혹에 넘어가고 내 대적자의 현혹을 진리이고 "나로부터 온 것"으로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사람들에게 단지 작은 지식만이 있을 지라도 그들은 이런 무의미한 현상들이 내 신적인 사랑과 구원의 길과 절대로 일치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세상적인 육신의 어머니가 절대로 대중들이 나에게 직접 향하는 길을 막으며 일어나는 일에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녀는 절대로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자신에게 인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그녀가 그녀의 전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 대적자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서 아주 틀린 관점을 영접했다.

그들이 스스로 내 옆에 이방신을 했다. 그들은 이방신 주변에서 춤을 춘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한때 떠났던, 그리고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 가야만 하는 하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잘못 인도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거짓 빛을 사람들 눈 앞에 세울 줄 알고 자신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일으키는 자는 바로 내 대적자이다. 그는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진실 된 현상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그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는 아주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가 자신에게 계시했다고 대중이 믿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믿기 원한다. 사람들이 이를 믿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빛이 항상 나로부터 단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현혹되게 하지 말라. 왜냐면 내 대적자는 다른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대중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미 특별한 역사와 현상들 뒤에 누가 역사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숨어서 역사하고, 내 빛의 종들도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역사는 단지 아주 적게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대적자의 역사는 항상

전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이를 통해 대적자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너희는 너희 곁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B.D. No. 6070

1954년 10월 5일

너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심장이 갈망하는 것을 이제 진지하게 점검하라. 너희의 감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맘몬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이는 공허한 말이다.

왜냐면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곁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게 된다. 너희는 유일하게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릴 것이고 이제 또한 내 사랑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의 가장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사랑이 향하게 돼야 할 가장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신인 너희 사람들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이 너희에게 갈망할 만한 동안에는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맘몬을 갈망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다른 신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왜냐면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는 너희의 모든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랑을 너희가 진실로 추구하는 자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곁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내 계명이고 너희 사람들이 너희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내 계명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에게 나 외에 이방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심장으로 세상의 재물을 연연해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나를 향한 갈망이 너희의 온 심장을 채우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다. 내가 유일하게 선하고 진실되고 사랑할만하다. 내 곁에 이방 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믿는다면 그는 나를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유일하게 섬기기 위해 심장에서 모든 것을 추방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너희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지를 진지하게 점검하라.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주는 대상이 또한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또는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 너희를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번째 계명 (카톨릭: 두번째 계명)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B.D. No. 4978

1950년 10월 3일

기준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고, 내 뜻을 성취시켜야 한다. 너희는 항상 내 사랑의 계명을 염두해 둬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삶은 항상 나의 영원한 질서이고, 죄와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가 전한 십계명이 나의 사랑의 계명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지 확인을 해주고, 십계명은 내가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 나의 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

너는 단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게만 너희의 모든 사랑을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이 한 존재가 네가 마음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도달하려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너의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어떤 일도 너에게 없어야 한다. 왜냐면 사람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 신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네 사랑을 줄어들게 하고 그러므로 내 옆에 함께 있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사랑은 전적으로 모두 너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해야 한다. 왜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너의 삶과 너의 의지와 너의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즉 나 자신과 내 사랑을 얻었고, 내 가까이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계명은 첫 번째 개명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개명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창조한 것을 향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고 그러므로 두 계명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

너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믿을 수 있기 위해,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비록 너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모든 생각과 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나의 임재를 감지하고 느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내면의 생활에 항상 함께 하고, 너희 질문을 알고, 너희가 나에게 기회를 주면, 즉 생각으로 너희의 질문을 나에게 올리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면, 너희에게 항상 답변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응답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다시 말해 응답이 오는 내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항상 응답받을 것이다.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받으라.

세 번째 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최고로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이고 이런 존재로 머문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나와 연결될 수 있고, 너희가 나와 연합되기 원하면서 나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나를 부르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는 일을 통해 너희의 나를 향

한 의지를 나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절대로 제외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마지막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순종하면서 내 뜻을 따르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심장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 이름을 입에 담은 일을 원하지 않고, 너희가 거짓되게 사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실제로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는 나의 자녀로 보이기 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웃을 속이기 위해 항상 내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에게는 숨겨져 있는 너희의 생각과 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통해 나와 연결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심장과 입으로 말한 것이 다르고, 심장이 느낀 것과는 다르게 입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공개적으로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진실로 너희를 위해 더 낫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름을 사용하지만, 심장으로 나를 대적하는 너희에게 어떤 깨달음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너희 이웃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너희 죄를 두 배로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고, 너희가 나를 너희의 잘못된 생활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아직 나를 믿음으로 그들 자신에게 내가 최고로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너희를 심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비록 믿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너희의 잘못을 인내로 감당한다. 그러므로 모든 진지함이 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유혹이다. 내가 이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실제 성품을 숨기기 위해 너희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사용하는 일은 나를 무시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나를 공개적으로 나를 떠났을 것이고, 너희의 삶을 숨기려고 하지 안 했을 것이다. 헛되이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짓말이고 언젠가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심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일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

B.D. No. 3130

1944년 5월 23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분이 돼야 한다. 너희는 예수님을 너희의 심장에 모셔야 한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이요, 밝게 빛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돼야 한다. 너희는 이 가장 거룩한 이름을 조롱해서는 안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단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 안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약속을 너희에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한 것을 묶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 없고, 어두움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기 때문이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무서워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너희가 하는 일은 축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너희 편에 서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려 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공개적인 싸움을 선포하는 원수와 싸움에서 너희의 무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너희는 이 무기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어떤 도움도 불가능해 보일 때, 예수님을 부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너희 자신을 예수님에게 의탁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진실로 예수님의 원수 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어떤 경외심도 없는, 예수님 안의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작품으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가르침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할 것이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 역사할 때까지,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함으로 그들을 묶어, 더 이상 예수님을 대적하여 말하거나, 조롱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들이 모든 능력을 빼앗길 때 까지, 그들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게 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오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처벌받지 않고 남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땅에서 그에게 처벌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가 자신의 무거운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조롱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장은 굳어졌고, 사탄에게 빠졌다. 사탄은 그의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님과 싸우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위험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눠 준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 진리와 거짓. 대적자의 가면

B.D. No. 6123

1954년 11월 30일

나는 진실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 속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알고 유일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로 평가하고 이 의지에 알맞게 사람들을 양육한다. 너희가 실제 이웃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너희 심장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생각도 아는 나를 절대로 속일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영원한 진리 자체임을 알

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거짓이나 숨은 생각을 가지는 일이 혐오스러운 일임을 알아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거짓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나보이려는 너희의 가면을 전적으로 벗고 나에게 나오면, 그때에 내가 비로소 너희의 고난에 열린 귀를 갖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나는 단지 진리로 겸손으로 나에게 나오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다. 나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의롭고 진리 된 존재로 믿지 않는다. 나는 모든 거짓 된 가식이 없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자주 가면 뒤의 자신을 숨긴다. 만약에 너희가 가장 깊은 진리를 열심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숨기려 하는 모든 것을 너희 심장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대적자의 추종자이다. 내 대적자는 진리의 원수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어 하지만 아직 되지 못한 상태에 마치 도달한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그의 간계이다. 왜냐면 거짓은 항상 겉모양 뒤에 숨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마치 이미 소유한 것처럼 속인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는 절대로 내 뜻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된다.

그의 변장은 효과를 볼 수 없다. 왜냐면 나에 의해 그의 근본부터 들어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 앞에서 그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고 그가 내 앞에서 그의 성품과 생각을 숨기려고 하는 모든 거짓 된 가면을 버리면, 그는 비로소 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자신 그대로의 상태에서 나와 말하면, 내가 비로소 그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는 내가 그의 위험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나는 너희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너희의 부름이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고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겸손하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부여하는 내 사랑과 공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을 들어냄으로써 내 대적자를 피해 나에게 향하기를 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는 이제 그의 위험 가운데 내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예수 이름을 헛되이 말해서는 안된다.

B.D. No. 5074

1951년 2월 26일

내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된다. 이를 너희에게 하나의 계명으로 주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나를 향한 너희 사랑을 증명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왜냐면 내 이름이 너희에게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하늘과 땅에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내 이름은 오용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항상 나를 경시하려는 사람의 혼에 해를 끼칠 것이다. 나의 대적자는 이 계명을 어기며 나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한다. 다시 말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책임져야만 한다. 왜냐면 이는 내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나를 대적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경건하게 보이게 하고 속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내 이름을 말할지라도,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거짓

을 그럴싸하게 잘 포장하기 위해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내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할 때, 너희 자신이 그들에게 혹시 너희를 얻기 위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자신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야만 한다. 너희는 혹시 너희 자신의 모든 정욕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스스로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너희를 얻기 위한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그가 추구하는 일은 나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이 없는 힘과 권세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믿는 믿음을 전적으로 파괴하려고 한다. (1951년 2월 26일)

내 이름은 아주 거룩하다. 지하세계의 영들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두움의 존재도 나를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을 단지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이런 유혹은 자주 성공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에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고백하라고 요구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속일 수 없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있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두운 존재에게 대항할 때, 그들은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신성 앞에 모든 악한 영들은 도망친다. 그럴지라도 이름은 단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은 효과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하세계의 존재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기 원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다. 영이 들어 있지 않는 말은 단지 죽은 말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리인 모든 것은 생명을 가져야만 한다. 죽음의 밤의 상태 안에 있는 존재는 절대로 전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은 내 이름의 아주 큰 거룩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전혀 깨달음이 없이 내 이름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어디에 속임수가 있는지를 모른다. 단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 그들이 거짓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름을 부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는 깊은 믿음과 내 이름으로 이런 존재에 대항할 수 있다. 존재는 빛을 피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시험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임재할 수 있을 정도로, 내적으로 깊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너희 자신이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의 속임수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공격받는 것을 느끼고 의심이 들 때,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부르라. 나는 모든 어두운 존재들을 너희로부터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어떤 존재도 내 이름 앞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네번째 계명 (카톨릭: 세번째 계명)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B.D. No. 4979

1950년 10월 4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잘못 행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하고, 이 땅의 너희의 삶은 나와 연합이 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건너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 고요한 가운데 나와 단둘이 하는 대화를 통해 너희 자신을 영의 나라에 거하게 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올바른 주일을 지키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세상을 쫓고 추적하는 데서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유일하게 내 안에서 너희의 주님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의무를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너희가 자주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록, 너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해야 한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이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특별히 알려줘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버림받은 상태요 죄악된 상태요 이기적인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세밀하게 알려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러개의 계명으로 줘야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현 시대의 사람들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께 항상 순종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가 나로부터 과제를 받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람으로 양육하고 위를 향해 성장하는 목적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사는 길을 가능하게 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자연 본성적으로 실행하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돌봐준 부모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함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너희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쁨으로 지켜보고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심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나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고 창조한 존재들을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는다면, 이런 심장은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든다.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1950년 10월 4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생명을 폭력적으로 중단시켜 나의 은혜의 선물인 혼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은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고 너희는 이웃을 대적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두 배의 죄를 짓게 된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창조한 분을 사랑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과 같다.

비록 고귀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왜냐면 육신의 생명이 혼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육신 안의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단지 육신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믿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된다. 이 땅에서 또한 영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뒤쫓아 다니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미움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인해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진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사탄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깨어난 존재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파괴하는 일을 추구한다.

사탄은 죄짓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고, 사람들을 사탄적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는 죄를 짓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세상 권세자에 의해 강제로 행한 경우와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경우와 자신의 내면이 전적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에 반항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단지 이 계명을 어기며 행한 사람의 심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장에서부터 근원이 되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왜냐면 그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24/69

이 계명은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진 계명이다. 왜냐면 이 계명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감각의 방향에 관한 계명이고, 성적인 생활에 관한 계명이다. 물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나 자신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후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대적자에게는 사람들이 죄짓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이다. 모든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즐기는 일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단지 자연법칙의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혼이 높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뒤로 물러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욕망은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면, 그가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항상 그 뒤에는 나의 대적자의 영이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욕망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아주 진지한 계명이다. 간음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서 진실로 나의 질서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오용하는 일이다. 순수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생명이 탄생되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왜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법칙에 따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감각에 사로잡히는 일은 혼을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게 하고, 이로부터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려운 혼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육신의 정욕은 모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말살시키는 최고단계의 자기 사랑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게 된다. 진지하게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혼은 스스로 제한이 없이 즐겨서는 안 됨을 안다. 왜냐면 혼이 낮은 곳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말할 수 없이 싸워야만 함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부부를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후손을 낳도록 창조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 모든 넘어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인류가 지속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부부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들의 연약한 의지와 나의 대적자의 강력한 영향력을 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계명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들의 혼에게 해가 되게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발산시키는 사람보다 쉽게 높은 곳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다.

아멘

나는 전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누가 나의 사랑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나를 추구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의 사랑을 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는, 각 사람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 가까이에 있다. 그들은 항상 나를 깨달을 것이고, 나를 섬기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생각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연합되려는 그들로 인해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 안에서 인내하며, 나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깨닫도록, 그들은 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나의 말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받아야 하고, 나의 말과 함께 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나의 사랑을 보증한다. 이 말은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이 땅에 거하고, 나에게서 들으려고 하고, 사랑 안에서 나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또 다시 말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불멸하듯이,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통해 너희가 모든 일을 견디고, 모든 파괴하려는 의지에 대항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답변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는 일만을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사랑으로 첫 번째 계명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깨닫는다.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너희를 위한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희생한 나를 너희는 믿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 너희는 유일하게 내 안에서 댕가를 봐야 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너희는 단지 나의 임재만을 갈망해야 한다. 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는, 너희의 자유에 맡기는 계명이다. 왜냐하면 나의 계명이 아니라, 단지 너희 사랑이 너희가 행하는 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나의 계명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할 것이다.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계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나의 사랑이 전해질 때,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계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지 육체를 향해 있고, 그들은 육체를 위해 모든 계명을 무시한다. 이런 육체적인 갈망에 제한하도록, 자기 사랑에 족쇄를 채우도록, 나는 너희가 하루를 나를 생각하는 날로 지키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육체적인 일을 쉬고, 나의 계명에 따라 살라는 계명을 주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며,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일이 진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다.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물질을 극복한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신체적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준다면, 그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나의 뜻에 따라 사

는 모든 사람은 나를 추구하고, 나를 깊이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어기기를 원하지 않고, 비록 외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나의 교회의 한 일원이다.

너희 사람들은 오류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한다. 너희는 문자를 따라 행하고, 문자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물론 이로써 나를 섬긴다는 최선의 의도이지만,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하는 잘못된 관계와 암초를 만들어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고,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확실히 올바르게 인도할, 너희의 사랑하는 심장의 내면에서 나오는 음성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모든 계명은 단지 너희 안의 사랑이 최고로 확산되게 해야 한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너희에게 진실로 나의 계명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이웃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것이고, 절대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의 의지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나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긴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행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항상 너희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사랑에 따라 평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의지를 성취시킨다고 믿는다면, 이 일도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나의 뜻으로 따르려는 사람이 외적인 것을 지키지 안했다고, 절대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그는 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인 기도. 간격을 줄이는 일.

B.D. No. 4461

1948년 10월 15일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는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다. 나의 임재를 구하는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금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이 다리를 너희에게 세웠고, 나는 너희와 나 사이의 간격을 연결시켰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떨어져 있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절반 정도 마중 나간다. 이제 너희 자신이 단지 나에게 나오려는 의지만 가지면 된다. 너희가 위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면, 너희는 말할 수 없게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있는 나라가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나의 나라의 들어서면, 모든 세상 것을 뒤로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는 기도이고, 너희 생각을 세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다. 기도가 침묵가운데 나를 부르는 것이든, 너희 생각이 세상 영역이 아닌 곳에 거하든, 너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깨달으려고 하고, 너희의 의지는 나를 향해 있다. 너희는 항상 눈앞의 너희 목표로 나를 삼고 살기 위해, 다리위로 들어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의지를 깨닫고, 너희를 마중하기 위해 다가간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의 지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깊이 기도하고, 나의 임재를 의식하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아주 많이 다가온 것이고, 너희와 나 사이의 간격은 항상 줄어들 것이다. 나의 손이 너희를 향해 펼치고, 너희를 인도하고 끌어당길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너희는 곧 목표에 도달한다. 긴급하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건설한 다리인 기도를 활용하라. 생각으로 항상 나와 연결시켜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 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때까지, 단지 이 목표가 너희에게 탐스럽게 볼 때까지, 너희 혼이 너희의 진정한 고향을 깨닫고, 이 고향이 너희의 모든 동경의 대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영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연약함을 나에게 고백하라. 그러면 너희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 가야만 하는 먼 길을 위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마중 나오기를 너희가 소원하며 구하면, 너희 길은 더 이상 멀거나, 어렵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간격은 더욱 줄어든다. 다리는 곧 건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영역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비록 너희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 혼은 나의 나라에 있고, 너희 혼은 위에 거하고, 혼은 그의 목표에 도달했고, 혼은 나를 찾았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혼은 더 이상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찾은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 땅의 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이 축복되도록, 건설한 다리를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멘

내면의 생활. 고독한 가운데로 뒤로 물러섬.

B.D. No. 4343

1948년 6월 20일

고독하게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놀라운 것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생각의 세계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가 한번 들어서면, 너희에게 새롭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영역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영적 가르침은 아주 귀하다. 왜냐면 이 가르침은 너희에게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실로 세상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아주 크게 유용한 것을 영적 지식을 통해 얻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 지식은 죽음의 순간에 잊히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지식은 밝은 빛처럼 빛나, 부드러운 광채를 전파해, 이를 통해 전적으로 무지한 혼들이 안락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광채를 향해 추구한다.

너희가 고요함 가운데로 물러설 때, 작은 방에 들어가 고요한 가운데 단지 나와 대화할 때, 너희는 나의 손에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는 고독함을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을 뒤로하고, 자주 나와 연합되어 내면의 생활을 해야 한다.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준비된 선생이 되어, 너희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지식을,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나와 영적인 접촉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나는 세상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등을 돌릴 때, 언제든지 나에게 도달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한 시간이 있는지는 너희에게 달려있고, 나와 함께 하는 일분, 일분의 시간에도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이 넘치는 영적인 부를 추

구하라. 그러면 너희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면, 세상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을 함으로, 단지 겉보기의 부를 추구하게 하는 세상을 뒤로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을 위한 보물을 모으려면, 자주 나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는 너희에게 항상 알맞은, 할 일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토론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선생으로써 너희에게 지식을 전해, 너희가 다시 그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나와 모든 연결은 축복이고, 너희가 높은 곳에 도달하게 돕기 때문이다. 나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너희는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한다는 것으로, 너희의 의지를 통해, 고요함 속으로 너희를 물러서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곁에 머물 것이다.

아멘

주의 날. 계명,

B.D. No. 5833

1953년 12월 22일

너희는 주님의 날을 지켜야 한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창조한, 끝없이 긴 여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 가야할 너희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었다. 이 계명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과 너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계명은 너희에게 필요가 없어야 하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생각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하고, 하루라도 나와 깊이 연합이 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게 해야 한다.

매일이 너희에게 주님의 날이 돼야 하고, 너희가 깊이 함께 기도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탁해야 한다. 그러나 무관심의 시대를 극복하고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고, 너희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너희의 실제 과제를 기억하도록 너희에게 계명을 줘야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가 주님의 날에 이와 같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나에게 대해 들어야만 하고, 읽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복되게 되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소개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주어졌다. 일을 하는 날들 뒤에 안식하는 날로, 이 안식일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구해야 한다.

이 날은 항상 반복되어야 한다. 너희가 매일을 주님의 날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 날은 너희에게 규칙적인 날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일하는 가운데서도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너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의뢰하며, 매시간 주님이 너희에게 임재하도록, 하늘의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그와 너희와의 모든 간격이 사라지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살며 역사할 수 있게 된다면, 진실로 너희 인생의 매일 매일이 너희에게 주님의 날이며, 비록 육체는 세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혼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올바른 혼의 안식일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계명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심장이 너희에게 명하고 그러면 너희는 계명이 없이 기쁨으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 일하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제 영원한 너희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섯번째 계명 (카톨릭: 네번째 계명)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B.D. No. 4979

1950년 10월 4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잘못 행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하고, 이 땅의 너희의 삶은 나와 연합이 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건너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 고요한 가운데 나와 단둘이 하는 대화를 통해 너희 자신을 영의 나라에 거하게 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올바른 주일을 지키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세상을 쫓고 추적하는 데서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유일하게 내 안에서 너희의 주님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의무를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너희가 자주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록, 너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해야 한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이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특별히 알려줘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버림받은 상태요 죄악된 상태요 이기적인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세밀하게 알려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러개의 계명으로 줘야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현 시대의 사람들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께 항상 순종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가 나로부터 과제를 받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람으로 양육하고 위를 향해 성장하는 목적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사는 길을 가능하게 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자연 본성적으로 실행하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돌봐준 부모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함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너희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쁨으로 지켜보고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심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나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고 창조한 존재들을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는다면, 이런 심장은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든다.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1950년 10월 4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생명을 폭력적으로 중단시켜 나의 은혜의 선물인 혼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은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고 너희는 이웃을 대적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두 배의 죄를 짓게 된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창조한 분을 사랑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과 같다.

비록 고귀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왜냐면 육신의 생명이 혼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육신 안의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단지 육신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믿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된다. 이 땅에서 또한 영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뒤쫓아 다니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미움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인해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진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사탄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깨어난 존재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파괴하는 일을 추구한다.

사탄은 죄짓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고, 사람들을 사탄적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는 죄를 짓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세상 권세자에 의해 강제로 행한 경우와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경우와 자신의 내면이 전적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에 반항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단지 이 계명을 어기며 행한 사람의 심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장에서부터 근원이 되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왜냐면 그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진 계명이다. 왜냐면 이 계명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감각의 방향에 관한 계명이고, 성적인 생활에 관한 계명이다. 물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나 자신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후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대적자에게는 사람들이 죄짓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이다. 모든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즐기는 일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단지 자연법칙의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혼이 높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뒤로 물러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욕망은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면, 그가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항상 그 뒤에는 나의 대적자의 영이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욕망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아주 진지한 계명이다. 간음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서 진실로 나의 질서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오용하는 일이다. 순수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생명이 탄생되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왜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법칙에 따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감각에 사로잡히는 일은 혼을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게 하고, 이로부터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려운 혼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육신의 정욕은 모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말살시키는 최고단계의 자기 사랑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게 된다. 진지하게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혼은 스스로 제한이 없이 즐겨서는 안 됨을 안다. 왜냐면 혼이 낮은 곳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말할 수 없이 싸워야만 함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부부를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후손을 낳도록 창조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 모든 넘어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인류가 지속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부부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들의 연약한 의지와 나의 대적자의 강력한 영향력을 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계명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들의 혼에게 해가 되게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발산시키는 사람보다 쉽게 높은 곳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다.

아멘

너희는 인간으로써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혼은 아직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다. 왜냐면 혼이 이제 혼을 둘러 싸고 있는 두꺼운 겉형체를 분해할 수 있기 전에 혼이 먼저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혼이 자신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혼은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더라도 자신 안의 선한 느낌을 발산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각과 행동은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는 일찍부터 자신 안에서 사랑의 불씨를 키운다. 이는 좋은 일이다. 왜냐면 이는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어린 아이는 자기를 의식하는 같은 상태에서 잘못 된 행동임을 자신 안의 작은 느낌으로 알지라도 그러나 나쁜 충동을 따른다.

두 가지 경우 둘다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의 초기의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혼이 내면의 자극에 대한 서로 다르기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의식하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으면, 이것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안다. 이제 이 어린 아이에게 서서히 지식을 전한다. 어린 아이는 질서의 법칙을 배운다. 다시 말해 그는 질서의 법칙을 항상 더 많이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자신 안에서 무엇이 선하게 역사하고 무엇이 악하게 역사하는지 체험할 것이다. 그는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들이 스스로 자신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영향을 받아 들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이에 따라 깨달음이 성장하거나 또는 초기의 혼의 눈이 먼 상태로 남는다. 왜냐면 외부에서 사람에게 전해진 지식은 아직 그가 깨달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 안의 사랑이 지식을 생명력 있게 만들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실제 이성을 채울 수 있지만 이 지식은 사람의 혼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지 착각하게 하는 빛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혼은 계속해 겉형체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점은 그가 자신을 의식할 때이고 자신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이고 그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감정이 깨어났을 때이고 깨어나는 일은 어떤 어린 아이에게는 일찍 또는 다른 아이에게는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이런 혼의 연약함은 항상 일찍이 세상의 삶을 마쳐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항상 성장 정도가 고려되고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진 지식이 고려 된다. 왜냐면 충만한 깨달음은 사랑으로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한 깨달음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에 따라 평가받는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지펴져 화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가 꺼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악한 혼에 합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에

자신을 달는다면, 그러므로 깨달음이 이런 내면의 악한 충동을 제거하지 못하면, 항상 나쁜 생각과 행동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악한 충동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양심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아주 큰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녀 안에 사랑이 깨어나게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이 일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이로써 어린 아이 안에 도우려는 자세를 길러줘야 하고 모든 이기적인 충동을 그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의 불씨가 단지 지퍼지면, 불씨는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혼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불씨가 스스로 그의 심장 안에 빛이 될 것이다. 어린 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이제 의식적이 될 것이고 그에게 곧 깨달음의 빛이 빠르게 임할 것이다. 그에게 이제 상응하는 지식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분인 불씨를 모든 사람 안에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웃 사랑.

B.D. No. 4868

1950년 3월 29일

너희가 나의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행하는 일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이 행동으로 나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너희가 희생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그들이 도움을 청한다는 말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러 너희에게 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고, 사람들의 고통이 너희가 측은하게 여기게 하면, 너희는 언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타당한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도울지라도, 만약에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귀찮게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이웃사랑을 행하면, 이는 이웃사랑으로 여길 수 없다. 이웃을 도우려는 일에 많은 동기들이 있다. 그러나 단지 너희 심장이 인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웃 사랑이 단지 나에게만 유효하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면, 이웃을 돕는 일이 조직화되고, 마치 기계처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웃 사람의 고통은 줄게 해줄지라도, 그런 일은 이웃사랑의 역사로,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여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베푸는 일은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다른 도움도 즉 모든 친절의 시선과 모든 선한 말들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면, 사랑의 역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영적인 위험과 혼적인 위험이 세상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곳에서 너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영적인 양육을 통해 내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통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속한 일들이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부드러운 동정심을 느끼는 심장을 요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웃의 심장에 사랑을 일깨워 그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너희는 두 배로 상급을 얻는다. 그러나 상급 때문에 도우려 하지 말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도우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역사는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공기와 물과 음식물의 오염.

B.D. No. 6855

1957년 6월 23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같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공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 각자를 공의로 대해야 한다. 내가 너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너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며 너희 자신이 이웃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내 사랑과 내 창조주의 의지가 너희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는 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재물로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내 손으로부터 받고 너희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고 너희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영적인 선물과 모든 세상적인 선물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적인 삶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빼앗아서 안 되는 것들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웃이 그에게서 빼앗아서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결과가 나타나 잘못된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도 당하고 이로써 창조물이 분해되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자연 요소가 너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이런 요소들이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이를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최고의 건강을 주는 공기와 물의 특성과 효과를 너희 자신에게서 확실히 보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공기와 물을 오염이 되어 이로 인해 신체기관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본다면, 공기와 물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손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죄악성이 아주 중요한 생명의 자산을 오염시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일을 꺼려하지 않는 일만으로 이미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것처럼 만약에 그가 이웃의 기본적인 생명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하거나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일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사람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게 하는 흙의 자연적인 특성을 빼앗고 인공적인 수단으로 이 땅이 다른 특성을 갖게 해서 이로써 그런 땅에서 자란 작물 안에 인간의 신체에 절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다른 성분이 섞이게 하는 일도 포함이 된다.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에 간섭해서 더 낮게 하려고 시도하고 내 창조물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들은 땅이 높은 소출을 올리도록 그들은 잘못 된 수단을 사용한다. 그들은 단지 진실로 축복된 추수를 하기 위해 나에게서 내 축복을 구하면 된다. 이 분야의 또 다른 죄는 소유욕과 물질적이 생각으로 작물들이 성숙하기 전에 추수하는 일이다. (1957년 6월 23일) 이를 통해 인간의 신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과 싸워야만 한다. 이는 순전히 육체에만 관련 된 일이 아니고 너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영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전부 내 영원한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로써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의롭게 행하지 않고 이 땅에 무질서가 계속하여 증가하도록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직 정해진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 단지 몸과 혼에 올바른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위해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좋은 식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어떤 사람도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해를 끼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웃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소유욕과 권세욕으로 모든 방식으로 생각할 것 없이 실험을 강행하여 생명의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결국 묶여진 존재들을 해방시키면, 존재들이 다시 자기에게 속할 것이라는 잘못 된 판단 아래 모든 창조물들을 파괴하려 자가 승리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자의 권세 아래 놓이고 그들의 속삭임을 따르고 그들은 사랑과 공의를 요구하는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단지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로 인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해서 원소들이 언젠가 큰 파괴력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섯번째 계명 (카톨릭: 다섯번째 계명)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B.D. No. 4979

1950년 10월 4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잘못 행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하고, 이 땅의 너희의 삶은 나와 연합이 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건너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 고요한 가운데 나와 단둘이 하는 대화를 통해 너희 자신을 영의 나라에 거하게 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올바른 주일을 지키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세상을 쫓고 추적하는 데서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유일하게 내 안에서 너희의 주님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의무를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너희가 자주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록, 너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해야 한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이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특별히 알려줘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버림받은 상태요 죄악된 상태요 이기적인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세밀하게 알려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러개의 계명으로 줘야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현 시대의 사람들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께 항상 순종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가 나로부터 과제를 받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람으로 양육하고 위를 향해 성장하는 목적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사는 길을 가능하게 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자연 본성적으로 실행하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돌봐준 부모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함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너희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쁨으로 지켜보고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심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나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고 창조한 존재들을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는다면, 이런 심장은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든다.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1950년 10월 4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생명을 폭력적으로 중단시켜 나의 은혜의 선물인 혼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은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고 너희는 이웃을 대적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두 배의 죄를 짓게 된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창조한 분을 사랑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과 같다.

비록 고귀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왜냐면 육신의 생명이 혼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육신 안의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단지 육신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믿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된다. 이 땅에서 또한 영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뒤쫓아 다니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미움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인해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진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사탄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깨어난 존재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파괴하는 일을 추구한다.

사탄은 죄짓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고, 사람들을 사탄적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는 죄를 짓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세상 권세자에 의해 강제로 행한 경우와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경우와 자신의 내면이 전적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에 반항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단지 이 계명을 어기며 행한 사람의 심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장에서부터 근원이 되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왜냐면 그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39/69

이 계명은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진 계명이다. 왜냐면 이 계명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감각의 방향에 관한 계명이고, 성적인 생활에 관한 계명이다. 물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나 자신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후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대적자에게는 사람들이 죄짓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이다. 모든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즐기는 일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단지 자연법칙의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혼이 높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뒤로 물러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욕망은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면, 그가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항상 그 뒤에는 나의 대적자의 영이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욕망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아주 진지한 계명이다. 간음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서 진실로 나의 질서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오용하는 일이다. 순수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생명이 탄생되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왜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법칙에 따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감각에 사로잡히는 일은 혼을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게 하고, 이로부터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려운 혼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육신의 정욕은 모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말살시키는 최고단계의 자기 사랑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게 된다. 진지하게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혼은 스스로 제한이 없이 즐겨서는 안 됨을 안다. 왜냐면 혼이 낮은 곳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말할 수 없이 싸워야만 함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부부를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후손을 낳도록 창조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 모든 넘어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인류가 지속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부부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들의 연약한 의지와 나의 대적자의 강력한 영향력을 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계명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들의 혼에게 해가 되게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발산시키는 사람보다 쉽게 높은 곳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다.

아멘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타락한 존재를 도와 깊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맞게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고의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창조물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만든 것들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들이 높은 곳을 향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다시 유용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창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이나 다른 창조물들을 섬겨, 존재들이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물도 사명을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과정을 중단시키는 일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물질을 파괴하던 모든 파괴도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섬기는 기능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파괴는 이웃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파괴는 불법 행위요, 이웃에 대한 불법행위요, 진실로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로 창조한 하나님의 대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무섭게 복수한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없음과 미움의 충동으로 파괴하는 일들로 인해 사람들 자신이 당해야만 하고 또한 순전히 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또한 당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잃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잃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특별하게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찍이 자유롭게 되어 자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특히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혼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잃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혼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 혼에게 큰 해를 끼친다. 혼은 영적인 추구를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혼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될 것이다. 창조물이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희생되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창조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든 사람이 만들었든 건설적인 일을 하려는 모든 창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파괴하려는 원칙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현재 세상에서 분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을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 안에 파괴하려는 욕망을 깨어나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창조물의 목적과 의미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파괴하는 역사에 대항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더 큰 파괴의 역사는 단지 그의 사랑에 근거한

역사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섬기는 과정을 가질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끝없이 긴 감옥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은 굳은 물질이 부드러워지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제한을 가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성장할 수 있고 피조물을 성장 수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파괴의 역사를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괴하는 역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높이 성장하는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질서이다. 사람이 창조한 모든 작품이 섬기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섬기려는 의지에서 나오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보장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서이다.

아멘

싸움. 싸움의 동기.

B.D. No. 1499

1940년 6월 30일

고 귀한 일을 행했다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항상 내적인 만족감을 준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과제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에 대적하는 일들은, 불의를 깨달을 때까지, 즉 스스로 자신이 잘못 행한 일을 알게 될 때까지, 그들을 짓누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일은, 선한 일을 위해 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근원이 소유욕이나 불의가 아닌 한, 싸움을 통해 항상 지원되는 것은 선한 것과 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동의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의와 선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싸울 경우는 항상 평화 없음으로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경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자신의 대적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만 한다. 그는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적자에게도 보장해줘야만 한다. 그는 단지 강한 자의 권세와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는 아버지처럼 부드럽고 현명하게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만약에 그의 선한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비로소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만 한다. 이럴 때 공의가 그의 편이 된다.

사람이 공의 편에 있다는 권리가 있는지 헤아려 보기 원하면, 그는 의롭고 공의로운 느낌에서 또는 미움과 소유욕으로 불타올라 싸움을 시작했는지 구별해보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다. 그는 싸움을 시작하게 한 조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면, 싸우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계명을 위해 사람들에게 싸우라고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고, 드러나게 악을 나타내는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다. 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의와 공의 사이에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인간의 잘

못된 생각은 모든 공의에 대한 느낌을 질식시키는 위험을 가져온다. 의로운 것은 사랑의 계명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 준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계명에 근거해 모든 행동을 할 때 그는 항상 의롭고 공의롭다. 주님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웃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이를 넘겨야 한다. 대부분의 싸움의 원인은 소유욕과 권세욕이 결합된 복수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 그가 스스로 복수하면, 자주 잔인한 방법으로 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존중하지 않게 되고, 악을 행한 자와 공의로운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되고, 싸우는 자가 악을 행한 자에게 더 큰 해를 입힌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불순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의한 것을 선하게 여겨 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근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대적하는 미움인 일을 시작하면서 축복해 달라는 불의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서로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지를 항상 평가 기준으로 삼고, 그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B.D. No. 6005

1954년 7월 19일

너희의 마지막 속박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너희 사람들에게 시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너희 혼에게 좋은 것으로 깨달은 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졌고 내가 맘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혼의 모든 성장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땅에서 타락할 위험이나 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을 안다.

내 사랑과 긍휼이 또한 혼의 퇴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삶을 조기에 끝내거나 또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항상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 수명을 연장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육체의 생명을 자기 맘대로 끝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랑과 긍휼에 개입하고 너희 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구원의 계획에 개입하고 너희 혼에게 해를 끼친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안에서 아주 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활용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저세상에서 너희에게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위를 추구하고 너희 혼의 상태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잃었고 혼이 가라 앉을 큰 위험이 있고 혼이 자기 맘대로 생명을 끝마친 일이 반항이었던 것처럼 혼이 반항하고 이런 돌아선 상태에 머물게 될 큰 위험

이 있다. 이런 혼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큰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들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나는 진실로 모든 사람의 곁에 있고 또한 심지어 가장 큰 고난도 사람이 단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줄어든다. 고난은 또한 단지 너희 생각을 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한다. 사람에게 이 유가 없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혼이 이런 고난을 통해 위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이 나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 뜻을 어기고 마지막 구원을 위해 내 사랑과 은혜가 혼에게 준 생명을 버리면 혼은 자신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왜냐면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에게 은혜이고 내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이 영원히 자유롭고 축복될 수 있기 위해 갈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한 마지막 단계이다.

나는 인간 심장의 모든 움직임과 알고 진실로 공의하게 판단한다. 나는 내 피조물의 연약함을 고려한다. 그러나 내 피조물에게 잘못이 없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하면 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개입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없고 그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다스릴 때까지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주관자인 분에게 혼이 도피할 때까지 저세상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B.D. No. 6156

1955년 1월 6일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항상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로 세상적인 슬기로우심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일과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권한을 갖도록 창조하셨다. 연약한 자를 압제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강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약한 의지의 결과가 하나님께 인도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축복이 되게 할 수 있고 되게 할 것이다. 이로써 마지막에 가서는 끔찍한 행동도 양육하는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당하는 사람인 연약한 자의 의지가 똑 같이 악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는 언제든지 이 계명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보호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방어해야 할 권리가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자신

의 강함을 잘못 사용하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따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사람이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미움은 대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그는 또한 원수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를 보호해줄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혼의 성장을 위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위험 가운데 자기방어를 했을 경우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는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죽인 것과 같은 그의 죽음에 대한 같은 죄를 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지켜야만 할 계명이고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만약에 너희에게 생명을 지킬 능력이 주어졌다면, 항상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개념의 혼동이 있다. 권세에 대한 욕망과 정치적 이익과 원수 맺는 일과 사랑이 없는 일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규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된 명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거하게 되었고 정의라는 가면 아래 서로 간에 파괴하려는 생각과 또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이웃의 생명이 어느 누구에게도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가 없는 이런 요구에 강요에 의해 굴복하거나 또는 자유의지로 굴복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대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쉽게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그들은 혼을 위한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될 수 없다.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각은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세상 유익과 세상의 유리한 효과에 대한 생각들이 지배한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할 것 없이 버렸거나 또는 단지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데도 자유의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그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 심판할 것이다.

아멘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B.D. No. 4979

1950년 10월 4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잘못 행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하고, 이 땅의 너희의 삶은 나와 연합이 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건너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 고요한 가운데 나와 단둘이 하는 대화를 통해 너희 자신을 영의 나라에 거하게 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올바른 주일을 지키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세상을 쫓고 추적하는 데서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유일하게 내 안에서 너희의 주님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의무를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너희가 자주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록, 너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해야 한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이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특별히 알려줘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버림받은 상태요 최악된 상태요 이기적인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세밀하게 알려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러개의 계명으로 줘야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현 시대의 사람들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께 항상 순종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가 나로부터 과제를 받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람으로 양육하고 위를 향해 성장하는 목적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사는 길을 가능하게 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자연 본성적으로 실행하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돌봐준 부모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함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너희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쁨으로 지켜보고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심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나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고 창조한 존재들을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는다면, 이런 심장은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든다.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1950년 10월 4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생명을 폭력적으로 중단시켜 나의 은혜의 선물인 혼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은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고 너희는 이웃을 대적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두 배의 죄를 짓게 된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창조한 분을 사랑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과 같다.

비록 고귀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혼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육신 안의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단지 육신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믿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된다. 이 땅에서 또한 영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뒤쫓아 다니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미움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인해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진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사탄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깨어난 존재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파괴하는 일을 추구한다.

사탄은 죄짓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고, 사람들을 사탄적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는 죄를 짓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세상 권세자에 의해 강제로 행한 경우와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경우와 자신의 내면이 전적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에 반항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단지 이 계명을 어기며 행한 사람의 심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장에서부터 근원이 되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47/69

이 계명은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진 계명이다. 왜냐면 이 계명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감각의 방향에 관한 계명이고, 성적인 생활에 관한 계명이다. 물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나 자신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후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대적자에게는 사람들이 죄짓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이다. 모든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즐기는 일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단지 자연법칙의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혼이 높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뒤로 물러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욕망은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면, 그가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항상 그 뒤에는 나의 대적자의 영이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욕망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아주 진지한 계명이다. 간음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서 진실로 나의 질서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오용하는 일이다. 순수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생명이 탄생되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왜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법칙에 따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감각에 사로잡히는 일은 혼을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게 하고, 이로부터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려운 혼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육신의 정욕은 모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말살시키는 최고단계의 자기 사랑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게 된다. 진지하게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혼은 스스로 제한이 없이 즐겨서는 안 됨을 안다. 왜냐면 혼이 낮은 곳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말할 수 없이 싸워야만 함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부부를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후손을 낳도록 창조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 모든 넘어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인류가 지속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부부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들의 연약한 의지와 나의 대적자의 강력한 영향력을 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계명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들의 혼에게 해가 되게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발산시키는 사람보다 쉽게 높은 곳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다.

아멘

전 반적인 부도덕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를 동반한다. 이는 영적인 침체에 대한 증거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웃사람들의 느낌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으며 이웃사람들을 대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 미풍양속과 깊은 도덕이 없는 세대는 종말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왜냐하면 예의 바름을 단지 사람들의 장식물로만 여기고, 시대의 모든 흐름에 따라 모든 충동을 만족시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미풍양속의 법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만 한다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더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의 근거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정해진 사회적 질서 안에 살게 해주는 어떤 법도 자신의 원칙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민족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고,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법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은 법이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 법을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이 법의 축복을 깨닫고, 인간적인 질서를 위해 반발하지 않고 순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법이 갈수록 더 잊혀지고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를 버렸다. 왜냐하면 이 법규들이 충동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어난 영적인 성장의 퇴보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이 더 충동적이 될수록, 그가 하나님을 덜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갈망한다. 다시 말해 육체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육체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절제 없이 이 땅의 삶을 즐기도록 인도하는,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게 하고, 최악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세력에 빠지는 것이다. 이 영적인 세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법에 항상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가벼운 삶에 빠져 살게 만든다.

이런 세상 기쁨에 대한 자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혼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품위와 선한 관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는 일을 어떤 주저함도 없이 조롱하고, 놀린다. 각각의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로써 자주 가장 물염치한 방식으로 거부한다. 왜냐하면 도덕이 사라지는 일과 영적인 타락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깨우쳐지지 않았다. 이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 말하지만, 그러나 훨씬 퇴보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성장을 혼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추구할 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벼운 생활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도덕을 세우고, 이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옛 법을 무효로 만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질 것이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행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혼의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덕성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대한 모든 기준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감각의 중독. 성교. 목적.

B.D. No. 0850

1939년 4월 5일

대부분의 사람이 거부하는 일은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영접하는 일이다. 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의 행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성적인 욕망이 아주 강하게 발달하여, 정욕을 통해 가장 큰 저항하려는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운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에 굴복하고, 항상 지속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혼에 아주 큰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정욕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아주 많이 약해져, 이제는 순수하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육체적인 기쁨과 함께, 이로써 항상 또다시 자녀를 낳도록 해서,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는 혼에 이 땅의 위에 존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아주 자연적인 인간의 성교 과정을 주었다.

이것만이 단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목적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근신과 자기 절제를 통해 모든 성적인 도취에 빠질 가능성을 제어해야 한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이 땅의 가장 큰 과제를 회피하고, 제한이 없이 단지 육체적 욕망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이 육체의 욕망이 삶의 주된 동기가 되게 한다. 이를 통해 혼에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들어, 혼이 위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혼은 육체의 정욕에 의해 이 땅의 포로가 되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항상 그리고 항상 또다시 타락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싸운다.

인간의 신체 기관은 그의 욕구에 응해주는 일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신을 아주 잘 절제하고, 정욕을 극복하도록 양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응해주면 응해줄수록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그리고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채운다면, 혼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의식하는 만큼, 욕망이 절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육체가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혼에 대항하여 분노한다. 그들은 육체의 본래의 용도인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로써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신을 입기를 원하는 혼에 인간의 육체에 들어갈 기회를 막는다. 즉 인간이 태어나는 일을 막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부.

B.D. No. 4834

1950년 2월 10일

결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는 단지 이 땅에서 맺은 것이고, 하늘에서 맺어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할 수 없

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비록 이 땅에서 법적으로 결합되었을 지라도, 즉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갖췄다 할지라도, 이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이서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결합을 축복해주기를 구할 때, 비로소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곳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이루는 연합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아주 적은 수의 부부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맺어진 것으로 여길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교회의식이 하나님이 세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의 축복을 줄 수 없는 사랑이 없이, 세상 유익을 위해 결혼하는 이들에게도 결혼의식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거룩한 것이다. 부부는 하나님이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혼이 같이 성장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는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부관계는 맘대로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연합된 결혼은, 다시 말해 서로 같은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결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연합되고, 세상적으로는 단지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되어 한 동안 서로 떨어진다. 이런 부부는 영의 나라에서 다시 연합이 되어, 함께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부부는 이 땅에서 나, 영계에서 나 영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혼들의 연합으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목표이다. 사랑으로 한번 서로 연합한 것은 영원까지 연합된 상태로 남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맺어진 진정한 부부는 단지 아주 적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깊은 행복과 영적인 하나됨을 보기가 힘들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절대로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는 순전히 육체적인 호감에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축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올바른 부부가 된다. 이런 부부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영원까지 혼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산다.

아멘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B.D. No. 4982

1950년 10월 15일

신 실하게 인애하며 나를 섬기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증거이다: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이 주어졌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훔치면, 너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전적으로 공개적으로 어긴 것이다. 너희는 이웃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원수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소유를 지켜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너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짐이 되고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려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웃사람으로부터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단지 세상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웃사람의 혼에 도움이 되는 것과 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그의 모든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그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아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영적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웃도 영적 재물을 통해 배부르게 될 같은 권리가 있다. 너희가 이웃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런 일은 비록 이웃이 아직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마치 그에게 속한 것을 빼앗는 일과 같다. 너희의 행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영원한 창조주요 아버지인 나를 향한 사랑은 더욱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재물을 줄이는 일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하는 일이 너희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 간다. 마치 너희가 측량해서 주는 만큼 받고 너희가 주지 않는 만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가 벌어들인 상급을 받는다.

"너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다음 계명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단지 입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거짓말로 이웃의 권위를 또는 이웃 가운데 그의 위치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험담하는 일이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진리가 아닌 증언을 통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사랑이 없이 불의하게 행하는 일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너희에게 이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진실되게 충만한 사랑으로 증거해야 한다. 이웃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사랑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낮추려고 하면서,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지 못한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이웃사람 안에서 복수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모든 사랑을 없애고, 사람이 죄짓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진실 되게 머물러야 하고, 너희의 지식과 양심에 반하여 상대방이 얻지 않는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를 피하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뒤로 하는 모든 일을 피하라. 사람에 대한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평가는 이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는 사랑을 없애고, 너희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말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해가 될 때는 이웃에 대한 죄이고 영원한 진리인 나를 향한 죄가 되어 두 배의 죄가 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아멘

경계선의 돌. 영적인 소유. 영적인 부유함.

B.D. No. 1156

1939년 11월 2일

자신의 소유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시작되는 지점에 경계석이 항상 세워져 있다. 왜냐하면 경계석이 싸움과 불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계석은 소유자에 권리를 증명하고, 소유물 때문에 싸움에 시작되어, 서로 화해하기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정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이다. 사람들 스스로가 이웃사람이 소유를 존중하는, 볼수 있는 표식을 세운다.

이제 이 사례를 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영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 자신만이 이 지식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지식에는 경계선을 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소유를 위해 분쟁할 수도 없고, 즉 이웃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웃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면, 첫 번째 소유한 사람의 지식이 줄어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적인 지식은 분리될 수 없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빼앗을 필요가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주는 자에게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면서, 더욱 더 갈망하며 그에게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자신의 영적인 지식이 줄어들 것을 막기 위해 경계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한번 얻은 영적인 지식은 절대로 언제든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절대로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지 영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로 간의 영적인 지식을 받으려는 경쟁을 할 것이다. 존재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물의 안전을 위한 경계석은 단지 이 땅의 삶에서만 적용되고, 세상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경계를 정하려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존재가 모든 물질적인 정욕을 극복했고, 그의 소원이 단지 영적인 부유함에 있다면, 이 존재는 자기 자신의 것을 잃을 필요가 없이 항상 단지 주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인간의 영적인 침체의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증가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다. 이런 집착은 사람들이 걸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과 같고, 마치 점점 더 죄어와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사슬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위험 속에 있는 혼의 생명을 말한다.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성취되면, 사람의 의지가 혼의 상태를 스스로 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던 굳은 물질이 나중에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물질과 세상 소유를 갈망하는 일이 퇴보를 의미함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이미 극복하는 것을 다시 추구하고, 그들의 혼에게 끔찍한 감옥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추구하고, 자유가 없음으로 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다시 추구하고, 자유가 없는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일과 의무단계에서 이루는 모든 성장들이 영적인 존재를 수월하게 해주었지만, 사람이 이제 자신의 혼이 벗어난 사슬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세상 물질은 단지 육체를 섬긴다. 만약에 물질을 극복하면, 물질이 주는 일을 하도록,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행하도록 사람의 사랑을 자극하면, 비로소 물질이 혼을 섬긴다. 그러면 물질이 또한 혼의 생명에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야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갈망하지 않아야만 한다. 세상 물질을 갈망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재물을 갈망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갈망한다. 혼은 세상적인 어떤 것도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재물은 가지고 갈 수 있고, 영적인 재물이 유일하게 혼에게 행복한 상태를 준다.

그러나 사람이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혼이 미리 영의 나라에 거할 준비를 할 생각을 하기 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세상의 소유물은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영의 나라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영계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이 땅에서 영적인 보물을 모으므로 쉽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의 삶이 비록 길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눈깜짝할 사이이고, 그러나 혼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단지 항상 계속하여 또 다시 그의 헛된 삶에 대해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는 항상 단지 미리 생각하고, 그의 전 인생의 힘을 전적으로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남는 물질을 위해 소모하는 일에 대해 경고받을 수 있다.

그가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혼이 건강하고 능력이 충분하게 영의 나라에 갈수 있도록 생애를 보내도록 강요받을 수 없고, 단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주 갈망하는 것들을 항상 또 다시 빼앗길 것이다.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세상 소유의 무상함을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데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있는 사람이다.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보물을 모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영의 나라에서 복되게 되고, 일하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의 부유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B.D. No. 4982

1950년 10월 15일

신 실하게 인애하며 나를 섬기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증거이다: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이 주어졌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훔치면, 너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전적으로 공개적으로 어긴 것이다. 너희는 이웃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원수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소유를 지켜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너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짐이 되고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려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웃사람으로부터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단지 세상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웃사람의 혼에 도움이 되는 것과 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그의 모든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그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아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영적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웃도 영적 재물을 통해 배부르게 될 같은 권리가 있다. 너희가 이웃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런 일은 비록 이웃이 아직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마치 그에게 속한 것을 빼앗는 일과 같다. 너희의 행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영원한 창조주요 아버지인 나를 향한 사랑은 더욱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재물을 줄이는 일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하는 일이 너희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 간다. 마치 너희가 측량해서 주는 만큼 받고 너희가 주지 않는 만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가 벌어들인 상급을 받는다.

"너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다음 계명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단지 입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거짓말로 이웃의 권위를 또는 이웃 가운데 그의 위치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험담하는 일이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진리가 아닌 증언을 통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사랑이 없이 불의하게 행하는 일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너희에게 이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진실되게 충만한 사랑으로 증거해야 한다. 이웃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사랑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낮추려고 하면서,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지 못한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이웃사람 안에서 복수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모든 사랑을 없애고, 사람이 죄짓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진실되게 머물러야 하고, 너희의 지식과 양심에 반하여 상대방이 얻지 않는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를 피하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뒤로 하는 모든 일을 피하라. 사람에 대한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평가는 이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는 사랑을 없애고, 너희 사람들을 존경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말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해가 될 때는 이웃에 대한 죄이고 영원한 진리인 나를 향한 죄가 되어 두 배의 죄가 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아멘

거짓과 진리 1....

B.D. No. 0566

1938년 9월 1일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비록 너희가 진리를 깨달을 지라도, 진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짓의 영이 너희에 대한 권세를 갖게 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권세는 크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은 너희 모든 생각을 중독시키고, 너희의 모든 분별력을 빼앗기 때문이다. 거짓의 영 뒤에는 항상 모든 것이 거짓에 기원을 두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한 습관이 있다. 너희에게 빛이 비치려면, 너희는 진리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거짓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혼도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 진리가 존중되지 않는 곳에서 혼은 거부할 수 없게 어두움 안으로 끌려 간다. 모든 고난은 거짓으로부터 온다. 거짓은 악한 욕망과 정욕에게 문과 대문을 열어 준다. 거짓은 그 자체가 자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 안에 모든 선한 성향을 파괴한다. 모든 부패는 거짓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거짓은 어두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너희 심장 안에 순수한 진리를 심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아직도 작은 말을 돌려서 하는 표현이나, 거짓을 너희의 도피처로 삼는 동안에는, 진리의 영이 너희를 절대로 깨우쳐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전적으로 순수한 심장을 갖고, 거짓을 너희 모든 심장으로 경멸할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거짓말의 올라미가 커져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

너희는 거짓이 얼마나 악을 불러일으키고, 증가되고, 항상 새로운 거짓을 낳는지, 얼마나 거짓말의 결과가 강력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짓은 혼의 죽음이다. 반면에 순수한 진리는 혼에게 하늘에서 온 빛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위해 헌신하면, 너희 안이 빛이 되고, 밝은 상태에 머문다. 너희는 거짓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의 권세는 강력하고, 항상 악을 생산하지만, 순수한 진리는 훨씬 더 강하여, 거짓의 밤을 가장 밝은 빛의 권세로 비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진리만을 구하기를 원하면, 이 거짓을 발 아래 굴복시키고 이 땅에 끝없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대적자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이에 대항해 적게 또는 아예

싸우지 않는다. 거짓은 이 땅 전체에 퍼지고, 말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온다. 이 땅과 저 세상과의 순수한 영적인 연결을 이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적게 가지는 일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즉시 거짓의 나라에서 온 것으로 여기고 버린다. 그들은 분별하지 않고 즉시 거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과 거짓에 동반되는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끔찍한 결과가 모든 분야에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순수한 진리는 그들의 눈에 거짓이다. 그들은 거짓을 분별해보지 않고 더 잘 영접한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깨우침을 구하면, 그들에게 즉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들의 분별력이 날카롭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곧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밝아지고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악의 역사인 거짓을 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가 기도로 도피하지 않는 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거짓에 속박되어 머물 것이다. 주님은 이 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 원한다. 누가 이를 영접하는가? 아주 적은 숫자 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릴 것이고, 자신의 의지로 거짓의 자녀로 머문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단지 진리만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사탄의 역사.

B.D. No. 5535

1952년 11월 16일

지하 세계로부터 마귀가 미움을 심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어디서든지 입구를 찾으려고 한다. 그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사람들을 서로 자극하게 만든다. 그는 다툼과 불화를 심고, 거짓말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가 막으려고 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그는 이 길을 찾는데 필요한 평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는다. 만약에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해, 대적자가 다가 오는 것을 눈치 챌 때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그의 영향력이 강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단지 위를 향한 생각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요청하는 곳에서 그는 권세가 꺾이기 때문이다.

혼의 평안은 사탄에게는 끔찍한 것이고, 사탄은 이 평안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에게 다른 모든 일이 쉬워져 그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그가 너희를 얼마나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일을 미워하며, 너희를 타락시키기 위해 피곤해하지 않는 지를 모른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동안에는 그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너희 안의 사랑을 질식시키려고 하고, 너희가 내적으로 흥분되게 하려고 시도하고, 독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너희 안에서 이웃에 대한 고결하지 못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고, 그의 생각을 너희 안에 떠오르게 했다면, 이제 부채질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그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위험하고, 그의 미움은 큰 불행을 일으킨다.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어, 그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구하면서 초기에 사랑이 없는 감정의 동요의 싹부터 없애야 한다. 사탄은 이런 부름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 안의 선명한 생각에 혼돈을 일으키려고 시도한다. 세상에서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너희의 생각을 혼란케 하려는 사탄에게서 나온 역사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탄이 자신의 악한 씨를 뿌릴 좋은 밭을 찾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지속되고, 너희 자신이 바로 이 싸움의 대상임을 항상 생각하라. 너희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대적자가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혼자 만의 힘으로는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 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웃에 의해, 일어나는 일로 인해, 생각으로 인해, 경험으로 인해 불안해지지 말라.

모든 불안한 생각을 위를 향한 기도로 대응하라. 그러면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모든 유혹에 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의 평안이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무기로 너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모든 유혹자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분에게 도피하라.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혼자 대항하기에 너희가 너무 약함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나 모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고 허공으로 날려보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아멘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편을 들 의무가 있다.

B.D. No. 2247

1942년 3월 1일

노리고, 비방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관철될 수 있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스스로 진리 안에 서있고,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의 의무는 진리의 편에 서서, 항상 진리에 대항해 싸우려는 자들에 대항해 스스로 나서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진리를 회피하는 일은 진리에 대적하는 자의 편을 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진리는 항상 공격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사람은 아래로부터 오는 것만을,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아들하려고 한다. 이것은 항상 진리에 반대가 될 것이다. 진리가 이 땅에 전파되려면, 진리의 대표자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된다. 그는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유익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가운데, 진리에 대해 침묵하거나 또는 자신의 확신과 반대로 말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만한다. 이웃사람들이 탐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진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 보다 육신의 삶이 사람에게 더 가치가 있으면, 이 요구는 실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한다. 순수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순수한 진리를 전달할 의무를 받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의무를 받는다. 사람들이 이 선물에 대적하면, 사람은 비록 세상 권세자가 너희에게 침묵하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말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거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라도 만약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말해 더 좋은 지식에 대항해 진리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 또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깨달은 거짓된 진리가 전파될 때, 이에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둘 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는 무능력해진다. 반면에 그가 진리를 대변하면, 그에게 모든 대적하는 반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단지 거짓을 좋아하는, 그러므로 항상 진리에 대항해 싸우려는 놀리는 자와 비방하는 자들에 대항해 그는 승리자로 남을 것이다.

아멘

열 번째 계명.

B.D. No. 4983

1950년 10월 15일

아직 물질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모든 감각으로 물질을 갈망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물질을 극복하는 일이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고, 이 세상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을 죽이는 일이다. 왜냐면 단지 세상 것들을 극복함으로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일이, 비록 갈망하는 사람들의 혼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지라도, 죄가 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쉽게 죄로 인도한다. 왜냐면 갈망의 대상물을 종종 올바르게 얻은 방법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생각과 추구가 더욱 더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에게 향하고, 사람들이 이웃을 해치는 나쁜 충동과 성품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 사람의 모든 소유가 너희에게 거룩해야 하고, 너희는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가지려고 해서 안 된다. 이를 가지려는 생각부터 이미 죄이다. 왜냐면 이 생각 자체가 그의 혼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사랑을 모르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차가운 심장을 감추려고 해도 너희의 갈망을 통해 나에게 드러난다. 너희가 갈망하며 이웃의 물건을 볼 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생각으로 어긴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너희 형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에게 너희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이웃에게 보장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이웃이 잘 될 경우에 기뻐해야 하고, 그를 도와 그의 소유물이 증가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물질을 극복하는 싸움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모든 이웃한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된다. 왜냐면 너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상급으로 나의 사랑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이 상급은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재산과 기쁨을 능가하는 쇠하지 않는 은혜의 보물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모든 갈망을 멀리하라. 이 사랑의 계명은 너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 단지 준 것이다. 왜냐면 단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단지 사랑을 통해 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너희의 의지가 영원한 하나님께 향할 때 사랑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은 항상 더 넓어지고, 이 영역 안에서 너희는 계속하여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전적인 사랑 없음을 통해 너희는 사람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멀어졌는지, 그들이 항상 단지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항상 악한 것만이 나온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소유하려는 집착은 모든 나쁜 관습과 부도덕의 원인이다. 너희는 재물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이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항상 단지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불법적으로 또는 술법과 사기를 통해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얻으려고 할 것이다. 거짓말이 그에게 단지 작은 이익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웃사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실된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은 축복된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부터 이웃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할 것이고, 이로써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허용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재산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게 저 세상에서 쇠하지 않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육신의 죽음 후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단지 사람의 의지만이 필요하다.

세상 유혹은 반대의 세력이다. 눈먼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쁨의 가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수단으로 이 기쁨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 세상의 운명은 가난하고 기쁨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이웃사람들에게 주는 만큼 저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과 추구하는 일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만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한다. 자신의 소유를 자원하여 드릴 때 그는 두 배로 받고, 세상적인 면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것이고, 단지 사랑을 통해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너희 혼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면, 너희의 육신을 죽여라. 이 말은 너희를 고자로 만든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가하면서 너희 육신에 해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행동은 단지 너희의 부족한 이해심과 오류에 빠진 인간적인 생각을 나타내주고 내가 창조하여 너희에게 준 것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존중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은 너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고 너희가 너희 혼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치는 단지 육신의 안락함을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성취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일은 진실로 어렵고 이를 위해 전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자유의지로 절제하는 일이 요구되고 너희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을 스스로 거절하는 일이 요구 된다. 이 싸움을 위해 너희에게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온전함에 도달하려는 진지함이 있고 실제 온전하게 되는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힘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 온전함은 너희의 혼의 상태에 달려 있고 육체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와 육체의 정욕은 너희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기간에는 육체가 앞장을 서고 육체는 모든 요구들 가운데 자신의 요구를 우선시 하기를 원한다. 육체의 모든 소원과 욕망은 혼의 소원을 거절하기에 적합하다. 육체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혼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생각은 재 빨리 다시 물리침을 당한다. 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혼을 위해 육체를 등한시 하려면,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하고 혼을 만족시키지 않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과 너희 정욕에 대항해 싸우는 싸움을 요구한다. 이런 일은 혼이 단지 육체에 대항해 싸우는 일이다. 그러나 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혼은 언젠가 자신의 성장 정도에 맞는 운명을 짊어 져야만 한다. 사람이 육체를 먼저 생각하고 혼에게 게을리하면, 그의 성장 정도는 아주 낮게 된다.

너희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라. 너희의 육체를 죽여라. 육체에게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제공하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너희의 혼을 위해 주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체보다 단지 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둘 때 혼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싸움을 축복할 것이다. 처음에는 실제 너희에게 전적으로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극복하면 할수록 또한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진심으로 극복하기 원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사람에게 불쾌하게 보이는 가르침을 그가 영접하도록 움직이는 일은 단지 희귀하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불협화음을 피하며 그에게 가르침을 전해야만 한다. 먼저 가르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줘야만 한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그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사람에게 계명을 전해줘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이 요구받는 모든 것을 자원하여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그러면 위로부터 주어진 가르침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목표로 삼은 혼의 성장이 사람에게 실현된다. 혼의 성장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기준을 준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바르지 않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운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비록 이 계명이 자신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이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항상 자기를 다스리는 일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모두 지키려면, 포기하는 일과 극복하는 일을 요구되고,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정반대의 것을, 즉 그의 계명을 통해 나타난 것의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강요를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들 안의 강한 갈망과 싸워야만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싸우지 안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은 내면의 갈망을 따랐을 것이고, 이로써 그들의 성장 상태는 아주 위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꼭 조심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명 안에 정해주었다. 하나님은 모든 계명들을 그의 사랑의 계명 안에 요약해주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구든지 이 두 가지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행하라고 한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단지 사랑을 하라는 권면을 할 것이다.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 그에게는 특별히 계명을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을 혐오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이미 사랑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단지 사랑만을 줄 수 있다.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나로부터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만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항상 단지 사랑없음을 증명해주고 사랑없음에 대항하게 하는 다른 모든 계명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모세를 통해 주기 전에 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에 모든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모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의로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사람들의 각가지 잘못을 나타내기 위해 개별로 계명을 준 것이다. 모든 죄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세 당시나 내가 이 땅에 거할 당시나 죄 가운데 살았다. 사랑은 식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웃들의 생명이나 소유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죄악됨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방식을 바꾸게 해야만 했다.

항상 또 다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문제이다. 모세 당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또 나 자신이 인간 예수로 살 때 했던 것처럼 항상 또 다시 나는 내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해야 한다. 항상 선지자들이 있어 왔고 항상 또 다시 선지자들은 있을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서 떠날 때 사랑이 식어 사랑이 없는 삶을 살 때 이로 인해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끔찍한 종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삶은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가장 큰 세상적인 고난과 내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창조한 것들의 파괴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질서는 단 한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한가지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삶은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 상태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상태로 있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존재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랑을 모든 건강치 못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능력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빛으로 나와 최종적으로 연합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수단으로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

사랑이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할 때 끔찍한 종말을 너희에게 예고하는 내 일꾼을 통해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한때에 빛과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에게 죽음 같은 정체요, 어두움이요, 무능력이요, 묶임 받음을 의미한다.

단지 사랑이 이전의 이런 상태로 다시 되돌리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은 항상 영원히 최우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

명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선지자를 통해 큰 소리로 외치게 할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될 수 없다. 존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들의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 갈수 있게 하는 나와 연합을 단지 사랑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기 때문에 사랑이 지배하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법적인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게 되는 특별히 종말 전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선지자들의 소리는 크게 울릴 것이다.

아멘

계명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B.D. No. 8473

1963년 4월 20일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단지 사람들이 정한 계명을 주고 이 계명에 따라 정해진 경계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의지이다. 왜냐면 이 자유의지로만 혼이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의지에 자유를 빼앗는다면, 자유를 빼앗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규정 앞에서 이런 용기를 갖지 못한다. 나는 질문한다: 너희는 왜 이런 인간적인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다른 계명은 쉽게 어기느냐? 인간들 편에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희는 이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믿으라고 요구받으면, 너희는 왜 이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가르침을 진리로 영접하기 전에 왜 너희는 스스로 선명한 빛을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무관심으로 나 스스로 너희에게 준 계명을 너희는 지키지 않느냐? 얼마나 미지근하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처신을 하는가? 그러나 인간이 준 계명은 열심히 지킨다.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얼마나 많은 빛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진리를 가리던 너희 눈의 모든 비늘이 벗겨 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한가지를 질문해 보라: 누가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었다는 보증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가? 이미 작은 의심이 너희가 빛에 자신을 열었다는 것을 너희가 빛을 갈망함을 그리고 이런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어떠한 강요상태 가운데 두는 것은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이 한때 자신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만든 나를 대적하는 가장 큰 죄이다.

이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면 이는 혼의 성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혼이 성장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보장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 가운데 행한 일만이 영적인 성장에 단지 도움을 준다.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계명을 통해 강요상태로 만들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너희는 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전적으로 진지하게 단지 진리를 중요시 여기면, 이런 후견인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를 좋아

하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살아라.“ 것은 행하지 않는다:

사랑의 삶은 항상 영을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는 내가 절대로 사람들의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영접하지 말라. 항상 단지 너희의 생각이 올바르게 내 도움을 청하라. 나에게 긴밀한 기도를 한 후에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진리에 대한 올바른 느낌을 너희 심장에 넣어 준다. 만약에 너희가 나 자신을 올바른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먼저 설명을 받기 위해 나에게 나오면, 너희는 쉽게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문자적으로 전해지는 과정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데 많은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를 진리로 영접할 수 있게 나는 너희의 생각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올바르게 사는 굳은 확신을 가질 것이다. 이웃이 너희에게 가르치면서 이를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명하면서 너희가 생각을 못하게 할 권리가 없음을 알아라. 이런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권리를 나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사람이 스스로 그가 무엇을 영접할 것인지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의 계명을 다른 어떤 계명보다 중요시 여길 때 그의 성장은 보장 된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더욱 더 진리에 도달한다. 그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가 버려야 할 영적인 오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빛은 강하고 혼에게는 모든 오류를 의미하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진리 안에서 서기 위해 사랑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의지하는 진리 위에 서있지 않은 소위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의 계명의 의미. 사랑은 식었다.

B.D. No. 8067

1961년 12월 22일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해 내 사랑이 없이는 소망이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깊은 밤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거했을 때와 같은 위험이 이 시대에도 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서 낮의 밝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내가 전에 이 땅에서 살 동안 했던 것처럼 또 다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인 복음을 전한다.

왜냐면 내가 그들의 무능력함과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원인이 단지 사랑이 부족한 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빛과 능력이 있다. 인류는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사랑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이 전혀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빠져있다. 이 위험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차가워졌다. 내 대적자가 이런 사람들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을 항상 더욱 더 큰 사랑없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 간다.

이제 나는 이 땅에 다시 거하면서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자와 그의 심장에 사랑을 불지피운 자에게 임재한다. 이런 내 임재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걸음으로써 증명이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내 지시에 의해 받아 적어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왜냐면 그의 심장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심장으로 나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큰 영적인 위험이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한때 내가 같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할 때보다 더 너희에게 말을 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를 깨달았다. 현재도 단지 적은 수만이 나를 깨닫는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같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로부터 창조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고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가 살 때 비로소 내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내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선포한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영적인 어두움과 너희의 큰 위험의 원인에 대해 말해야만 하고 너희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삶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계속하여 내 의지 안에서 살게 경고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어두움과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너희의 구원자가 다시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빛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 간다.

너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복음을 순수한 형태로 전한다. 너희는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은 높은 곳에서 이 땅 위로 전해지고 너희 심장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나는 너희 안에서 임재할 수 있고 너희 자신들에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는 아버지 음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같은 것이다.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너희의 인생의 과제가 있다.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을 깨닫고 생명력 있게 나를 믿고 이 세상의 구원자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 축복받는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단지 너희에게 내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한다. 이 가르침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직접 주어지는 만약에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내 영의 역사로 인해 너희 안에서 울리는 말씀의 내용이 될 것이다. 내 말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안에 내 임재의 증명을 얻을 수 있다. 단지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영적인 위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두움의 밤이 낮을 피해 물러 갈 것이다. 너희 자신은 빛이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랑을 갈망하는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다시 사랑이 되고 너희가 한때 창조되어 나왔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